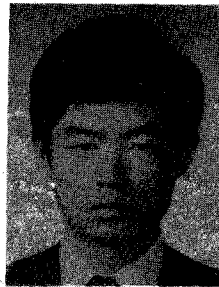


브로일러 실용계의 일반관리 (I)



김 창 수

한협축산 생산과장

육계 관리의 체계적이며 능률적인 관리방법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이 될 것이다.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습도, 환기 및 품질 등 몇 가지의 필수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필자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정성이다.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기본은 그 상태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주시하여 그 생물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병아리를 사랑하고 그 병아리의 요구를 말없이 들어줄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진 다음 육추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또한 무슨 병이 어떻고 무슨 자동기계가 어떻고를 따지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위를 보라.

ILT백신은 접종하면서도 주위 환경의 정비나 소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육추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개의 난로를 더 설치하면서 셋바람이 들어오는 쥐구멍은 못본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문제는 초보자가 아니라 수년간 종사해온 경험자들이다. 따라서 본란은 우리가 잇기 쉬운 기본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I. 병아리 선택과 육추관리

1. 우수한 병아리의 선택요령

우리나라는 300~400여개의 군소 부화장이 있는데, 명성, 신뢰도, 품종 등 기존 사양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화장을 선택한 다음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방역상 이로운 일이며, 아래와 같은 초생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1) 병아리는 건강한 모체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 2) 이상적인 병아리의 평균 무게는 수당 38.6g이다.
- 3) 병아리는 크기와 색깔이 일정해야 한다.
- 4) 병아리는 난각 등의 오물이 없이 깨끗하게 부화되어야 한다.
- 5) 눈은 동그랗고 맑아야 한다.
- 6) 재빠르며 활동적이어야 한다.
- 7) 배꼽이 잘 아물어야 하며 물렁물렁해서는 안된다.
- 8) 항문이 막혀서도 안된다.

9) 정강이와 다리의 표면은 밝고 윤이 나야 한다(건조하거나 연약해서는 안된다).

10) 구부러진 다리, 손상된 머리나 눈, 어긋난 부리와 같은 불구가 없어야 한다.

11) 가능하다면 MG나 MS에 음성반응을 나타내는 계군을 사육하며,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계군을 사육해야 할 경우에는 두 계군을 반드시 분리 사육해야 한다.

12) 또한 감보로, AE 등은 양성반응을 나타내야 한다.

13) 병아리는 부화후 6~12시간 이내에는 첫 모이와 물이 급여되어야 한다. 만약 첫 모이의 급여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병아리가 탈수를 일으켜 운송 도중, 육추 중에 폐사를 일으키고 판배시의 체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 깔짚의 관리

1) 깔짚으로는 보통 대패밥, 톱밥, 왕겨, 밀짚 등이 이용되지만 탄닌의 함량이 많고 잘 부서지는 딱딱한 나무의 대패밥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몸에 상처를 주며, 소낭과 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깔짚을 사용하든지 깔짚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며, 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차고 곰팡이가 생긴 깔짚은 피해야 한다.

2) 깔짚의 수분 함량은 20~25%가 적당하다. 수분이 20% 이하일 경우 먼지가 많이 나게 되며, 25%가 넘을 경우는 깔짚이 습하여 뭉치게 된다.

3) 닭을 출하한 후에는 가능하면 한번 사용한 깔짚은 제거하고 건물은 구석구석 소독을 해야 한다. 깔짚두께는 8~10cm가 적당하다.

4) 깔짚 재사용시 유의사항

- ①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계군깔짚 사용
- ② 전 계사내 철저한 소독
- ③ 뭉쳐진 깔짚의 덩어리나 젖은 자리것을 제거한다.

④ 충분히 건조시킨다.



△ 육추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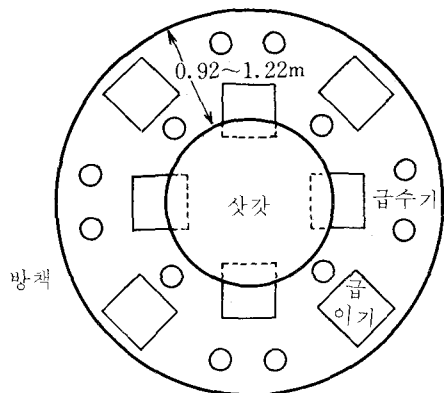
⑤ 본래의 수준까지 오도록 새 깔짚을 보충한다.

3. 육추관리

1) 병아리가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난로를 피우는 등 병아리 도착시 35℃가 되도록 조절해 놓는다.

2) 온도가 21.1℃가 될때까지 매주 2.8℃씩 내려 준다.

그림 1. 육추초기의 기구배치도



- 3) 46cm 높이의 방책을 원형으로 설치한다.
- 4) 7~14일까지는 방책을 조금씩 넓혀 20~25%까지 연장시킨다.
- 5) 하절기에는 방책의 둘레를 넓혀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
- 6) 너무 더운 날씨에는 그물형 방책을 사용한다.
- 7) 샷갓의 높이는 육추 온도에 따라 조절하지만 병아리의 등으로부터 최소한 13~16cm를 유지해야 한다.

4. 육계의 온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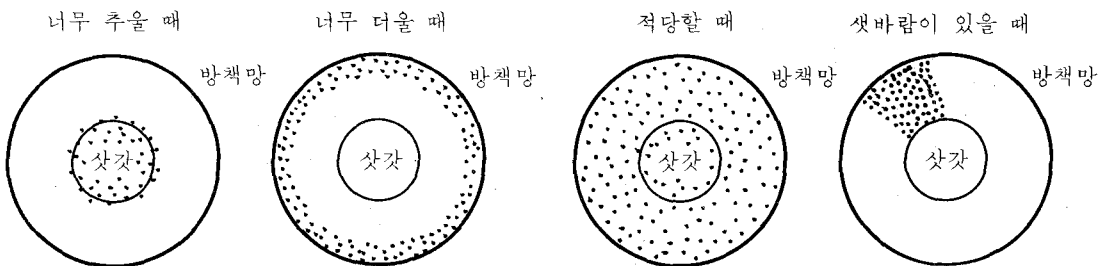
육추온도의 측정은 샷갓 가장자리의 깔짚으로부터 5cm 정도 위에서 측정한다.

표 1. 육추온도

일령	온도(°C)
0~7	35.
8~14	32.2
15~21	29.4
22~28	26.6
29~35	23.9
36~출하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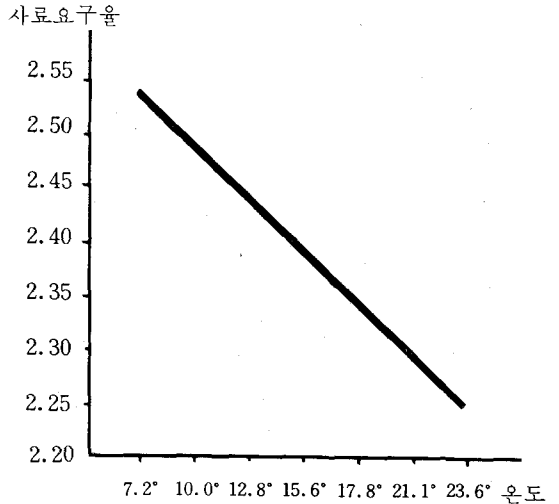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나 예방접종 실시의 경우에는 병아리가 정상적인 건강을 찾을 때까지 2.8°C 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다. 때때로 온도계가 틀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온도의 측정은 병아리의 행동으로 관찰한다.

그림 2.



온도의 변화는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요구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림 3. 28~56일령 육계와 온도의 사료요구율 상관관계



5. 육계의 수용면적

육계의 수용면적은 시장출하주령, 계사의 종류, 계절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면적이 요구된다.

- 1)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 계사
계절에 따라 봄, 가을, 겨울에는 평당 37~45수를 수용하고 더운 여름에는 평당 30~37수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단열재 사용 계사

평당 40수 정도 수용한다.

3) 완전 자동화된 계사

평당 45수 정도 수용

6. 육계의 급수관리

물은 닭의 체중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 정도를 손실하였을 경우 폐사를 일으키게 된다. 물은 소화와 신진대사, 호흡과 같은 생리기 전에 필수적인 것이다. 물은 또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과 체내의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능도 갖고있다. 한 실험보고에 의하면 정상적인 급수보다 10%를 제한급수하였을 경우 사료의 섭취량이 8주에 345g 정도가 줄어들고 그 결과 사료효율이 0.06 정도가 떨어졌다고 한다.

1) 처음 10~14일까지의 급수관리

병아리 도착시에는 1,000수당 4l의 물을 먹기 좋은 위치에 놓아 두어야 한다(사각에서 30cm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물을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5cm×15cm×15cm 정도의 깔판 위에 급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처음 3~4일간은 물의 온도를 실내온도와 같게 맞추어 준다.

2) 성계의 급수관리

급수기의 배치는 닭이 3m 반경 내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급수기의 높이는 닭의 등과 눈 사이의 높이로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표 2. 주령별 음수량

주령	100수당 1일 음수량(l)
1	1.88
2	3.76
3	5.68
4	7.57
5	9.46
6	11.35
7	13.24
8	15.14

표 3. 육계에 적합한 물의 성분

용해된 고형분	1,000 ppm 이하
알칼리정도	400ppm 이하
pH	8.0
질산염	45ppm 이하
황산염	250ppm 이하
염산나트륨	500ppm 이하
아연	2ppm 이하

(계속)

LP가스시대 도래

내린 가스값으로 고통스런 육추에서 해방되어
편하고 효율적인 육추를...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농동 246-10
☎ 445-0212, 1886

적외선 가스육추기는 태양열처럼 아래로 내려쬐인다. 병아리와 바닥이 잘 보온되며, 육추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노동력을 80% 이상 절약한다.